

Session 06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빛과 소금이 됨 (마 5:13-20)

(Kingdom Impact: Being Salt and Light)

I. 도입

- A. 예수님께서서는 빛과 소금의 상징을 사용하셔서 팔복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셨다(마 5:13-16).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이 도덕적인 타락했으며 영적으로 어두움이 가득 찬 상황으로 보고 계셨다. 그분은 성도들을 빛과 소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표현하셨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 5:13-15)

- 소금:** 소금은 부패를 막으며, 음식의 맛을 좋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죄에 물든 사회가 썩어가는 것을 막으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목마를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냉장고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소금을 뿌려서 고기가 썩지 않도록 했다.
 - 빛:** 빛은 어둠을 노출시키며, 방향을 제시해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
- B. 나는 이 구절을 접근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본다.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은 육신에 희생이 따르며, 핍박을 받게 되고, 희생적인 섬김이 요구된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 C.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팔복의 삶으로 부르신 이후에(3-12 절), 이 희생이 따르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을 확증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13-14 절).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게는 나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나갈 영광스런 계획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나가신다. 우리는 이 위대한 특권의 모두를 받아들여야 한다.
- D. 이 영적 전쟁의 주요 무기로는 팔복, 우리의 언어와 선행이 있다. 우리의 수는 적으며, 우리의 메시지는 가끔 경멸을 당한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온유한 백성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수가 너무 적어 보인다. 예수님께서서는 몇 명의 어부들을 부르셨으며,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마틴 루터는 말했다, “그분의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모든 권력, 총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 더 담대할 수 있으며 더욱 자랑할 수 있다.”
- E. 예수님께서서는 도덕적으로 썩어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빛과 소금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다. 세상은 자신이 썩어가는 것과 더 큰 어둠으로 빠져가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막아낼 수가 없다. 오직 세상의 바깥으로부터 부어지는 빛과 소금만이 이것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 F. 예수님께서서는 교회가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다. 소금은 그 맛을 잃어서는 안되며, 빛이 숨겨져서도 안 된다. 교회와 세상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관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구별됨을 유지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들로 부터 수용 받을 것을 기대하며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 유혹을 받기도 한다.

- G. 빛과 소금이 될 것의 부르심은 사회에 필요한 영향력을 끼칠 것에 대한 부르심이다. 우리는 오직 진리에 서 있을 때만 이 일을 행할 수 있으며, 어려운 부분을 빼버려서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며 이 일을 행해나가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육적인 사고를 실족케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도 다르다.
1. C.S 루이스는 **세상을 거스르지만 세상을 향하는, 저항하는 생각(resistance thinking)**에 대해 썼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만하고 편안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된다. 우리는 자기 부인, 희생, 박해에 대한 예수님을 가르침을 유지해야 하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항이 있는 메시지라고 해서 이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2. 우리의 메시지는 **세상을 긍정함**과 동시에, **세상을 부정**하는 십자가의 소문을 두 가지로 전하는 것이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둘째,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로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며 나가야 한다. 교회가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거절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며 타협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세상이 자신의 부패함으로 인해 **어떻게 되어버렸는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의** 부르심과 존귀함을 동시에 선포해야 한다. 나는 **오스 기니스(Os Guinness)의 Prophetic Untimeliness(예언적인 시기상조)**라는 책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3. 영혼을 얻는다는 이유로 세속적인 음악과 패션, 영화 등에 섞여 들어감으로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은 큰 실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지 않는 성도들은 세상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다.
- H. 그들을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권력 앞에 무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혁명적인 사랑과 진리, 정의를 전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한 혁명가들을 세우고 계신다.
- I.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지 않으며,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해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짠 맛을 잃어버리며,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 고대에 소금은 정제소를 거치지 않으면 불순물들과 광물질이 그 안에 섞여있었다. 이 소금은 종종 흰 분말 형태였고 염화나트륨(소금)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물로 씻어내면 짠 맛을 내는 소금은 사라지고 흰색 분말 면지만 남았다.
- J.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하며, 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은, 썩어버린 것으로 가득 찬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에 대한 타협 없는 메시지를 그분의 은혜와 심판의 관점에서 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선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나가야 한다. “어둠을 증오하는 것보다 초하루를 밝히는 것이 낫다”는 중국 격언은 이를 잘 반영한다.
- K. 우리의 영적 정체성 중 하나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각각의 성도들은 자신의 힘과 재원을 자신의 세대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에 빛이 임하도록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삶을 통해 고백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해나갈 것입니다;

나는 빛과 소금으로서 진리를 증거하며, 성실하게 일해나가며, 죄를 거절하며, 풍성하게 베풀며, 다른 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이를 작고 연약하며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행할 것인데, 나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II.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4-16)

A. **등불을 켜서:**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때,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진리를 증거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신다. 그분은 이처럼 “우리의 등을 밝혀주신다.”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것들을 따라 진리를 증거해나가야 한다. 그분은 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실질적인 방법으로 섬겨나가도록 아주 간단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거나, 이웃에게 다가가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의 등불을 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인도하심을 행해나감을 말한다. 이것이 적은 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하기에, 많은 이들이 이를 행하기를 거절하기도 한다.

B.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하고 섬겨나가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고의로 감추거나, 정욕이나 게으름으로 인해 빛으로 행하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마 25:25-28)

C.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관해 말씀하신 가장 독특한 언급 중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빛을 비추는 동네는 빛을 비추는 많은 각각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각각이 작은 영향력들이 합해짐으로 숨길 수 없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각각의 충성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섬김을 계속해나갈 때, 이 동네가 드러나 보이게 될 것이다.

D.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겸손함과 부드러움, 진리에 대한 충성됨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기고 진리를 알리는데 있어서 어떤 영으로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관심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향하도록 삶을 살며, 말하며, 행해야 한다. 제자는 쇼맨십이 아닌, 모든 일을 온유함으로 행해야 한다(5 절).

III. 하나님의 충만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

A.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원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도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부분은 그분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일 것이다. 그분은 세상을 어느 수준까지 변화시켜 나가기 원하시는가?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이 어느 수준까지 일해 나가기 원하시는가?

B.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목적이거나 언약들, 도덕적인 계명들을 폐하거나 감하지 않으셨다(마 5:17-18).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오셨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열방은 정의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를 어느 수준까지 변화시켜 나가실지는 이사야서와 선지서들을 더 참조하길 바란다.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7-18)

- C. 일점(jot)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문자를 말한다. 일획(tittle)은 어떤 철자 위에 표시되어 다른 철자와 구분하는 엑센트 표시를 말한다(히브리어의 위 첨자).

IV. 위대함으로의 부르심

- A.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이 팔복을 살아나감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큰(위대한) 자가 되도록 초청하신다. 한 제자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주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계획에서 제가 맡을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서 저를 얼마나 사용하실지요? 다가올 세상에서는요?” 위대함을 향한 갈망은 회개할 부분이 아닌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이 갈망이 있도록 디자인 해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갈망을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계속해서)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지속적으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

- B.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크고 작음이나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대함으로 초청하신다. 이 위대함은 그분을 향한 마음의 순종과 사랑의 크기에 근거를 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위대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시하셨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 앞에서 위대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위대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위대함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은 현재의 세상이 아닌, 다가올 세상이 될 것이다.
- C.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다가올 세상에 있을 그분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특히 산상 수훈)의 작은 부분이라도 얼마나 지키고 가르치는지와 관계가 있다. 우리는 팔복을 자주 언급해야 하며, 이 부분을 격식이 없는 대화들을 통해서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이를 우리의 집이나, 가정 그룹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교적인 모임에서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팔복에 대한 메시지가 대중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통찰력들을 나눠야 한다.
- D.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축소해버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다가올 그분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목 하에 영적인 게으름과 수동성을 증가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 다가올 시대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현재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응답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다. “적은 일” 이 “많은 것”으로 바뀌는 일이 있을 것이며(마 25:21), “작은 것”이 “열 고을”로 바뀌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눅 19:17).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 25:21)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눅 19:17)

F. 나는 주께서 현재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서 있을 우리의 사역을 준비시키시는 70 년 동안의 인턴십으로 비유한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맡은 사역들은 천년왕국 때에도 지속될 것이며, 1,000 년 동안 계속 있을 것이다(계 20:4-6).

G. 다가올 시대에서, 우리들 각자는 서로 다른 영광을 가지는 부활체의 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큰 사랑을 받을 것이지만, 서로 다른 역할과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어떤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떤 성도는 크다(위대하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41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전 15:41-42)